

건축문화

a+u

신건축

Worl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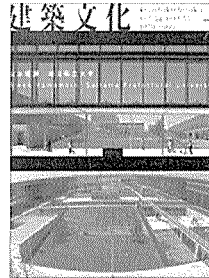
domus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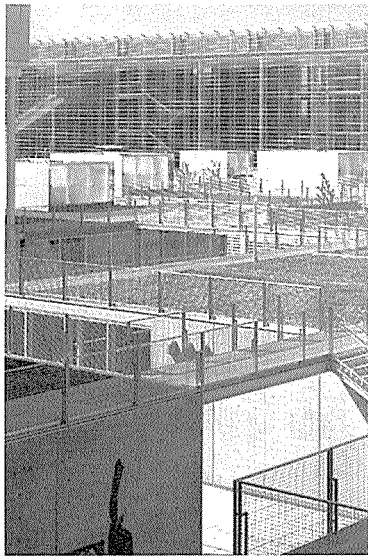
1999년 7월호

이번 호는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의 사이타마(埼玉)현립대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설계의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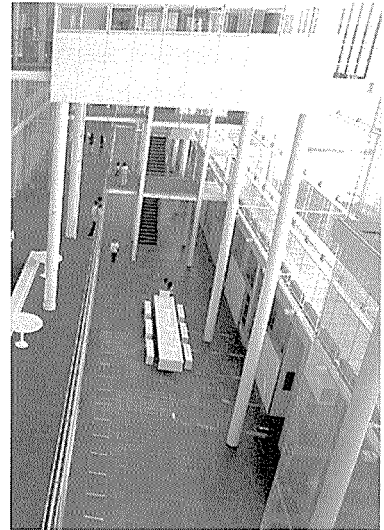
대한 작가의 설명과 대담, 비평 그리고 구조에 관한 에세이와 가구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사이타마 현립대학의 설계과정과 비평에 대한 총체적인 기술을 수많은 도면·사진과 함께 다루고 있다.

■ 특집 - 야마모토 리켄의 사이타마 현립대학



▶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 네트워크의 건축 - 야마모토 리켄

1995년 3월 사이타마현 설계자 선정위원회로부터 설계요강을 전달받아 38개사가 참여하는 지명 콘페에 참여하게 되었다. 요구된 것은 간호·복지·의료에 관한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의 전문대학도 계획부지에 함께 이전하여 계획하는 것이었다. 부지는 주변이 끝없이 펼쳐진 논으로, 남측의 오래된 농가와 잡



목림, 동측에만 구획정리에 의한 2층짜리 목조주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주위 환경으로부터 계획할 건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섰다. 또한 대학이 품고 있는 성격은 각 학과간의 분리가 아닌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에 착안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대학을 설계하는 방식인 분동형의 구성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은 분동형으로 할 경우 건물의 높이가 최소 5~6층에 달해, 전체 층수를 4층 이하로 하려는 의도와 상반된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져 결국 지금과 같은 구성을 하게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건축 구성을 '네트워크의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다.

▶ 건물의 개괄적인 형태 및 구조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이 대학의 계획은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대지의 양 끝단을 가로지르는 기다란 4층 짜리 매스 두 개로 막고, 그 사이에 단층 짜리 실험 실습실들을 마련 그 위를 옥상정원으로 꾸몄다. 기다란 두 개의 매스는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강의실 및 본부가 되고, 이들 매스와 중앙의 정원이 만나는 곳은 4개층을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작가는 이를 '미디어 갤러리'라 부르고 있다)를 두어 이들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 되게 하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단기하중은 코어가 담당하고 코어와 코어 사이에 설치되는 기동

은 장기하중만을 담당한다. 이들 기둥은 최종적으로 600×200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으로 계획되었다. 프리캐스트 기둥을 씌우면서 공기의 단축과 전체 공간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타

전체적인 설계와 구조 이외에도 가구디자인, 사인(Sign)의 디자인, 설비 등의 분야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이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해 놓고 있다. 가구와 사인의 디자인에는 야마자키 아카네(山崎あかね), 야마나카 준지(山中俊治), 쿠로카와 츠토무(黒川勉) 등 6명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 설비의 계획에 대해서는 니시와키 야스오(西脇康夫)가, 구조계획에 대해서는 카네다 카츠노리(金田勝徳)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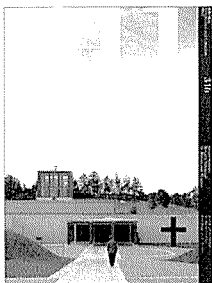
이 외에 야마모토 리켄과 건축가 아오키 준, 코지마 카즈히로의 본 작품에 대한 토론, 야마모토와 구조가 키무라 토시히코(木村俊彦)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구조재료로서의 PC의 가능성」 등이 게재되었다.

a+u

1999년 7월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Future System, Michael McGarry & Siobhán NiÉ anaigh,

Shane de Blacam & John Meagher 세 개 팀만의 것으로, 각 팀당 3개에서 8개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호는 꾸며졌다. 이들은 모두 영국과 아일랜드의 건축가들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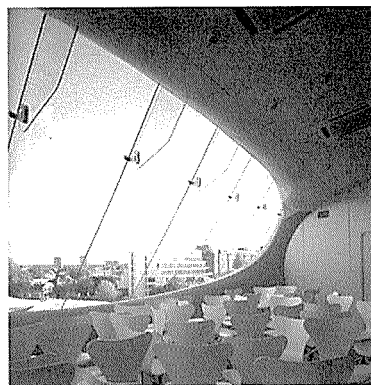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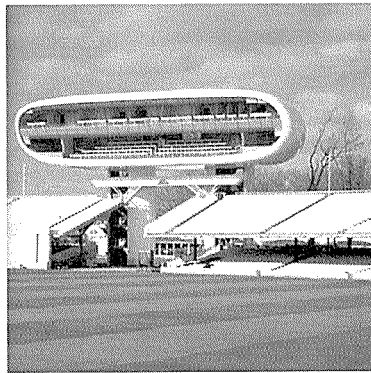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는 그룹들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 속에서 대지에의 관심이 많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 작품 소개

▶ 퓨처 시스템(Future System)

체코출신의 얀 카플리키(Jan Kaplicky)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된 퓨처 시스템의 작품은 학생과 실무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금은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린 카플리키의 「피너츠(the Peanut)」와 「小球(the Blob)」등의 포토몽타주는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NatWest Media Center)에서 사용된 아이디어와 기술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989년에는 아만다 레벤테(Amanda Levete)가 사무소의 파트너가 되어 퓨처시스템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Hauer King House, Floating Bridge, House in Wales 등은 그들의 잘 알려진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1997년에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의 프로젝트 건축가인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와 앵구스 폰드(Angus Pond)가 퓨처시스템과 협력하게 되면서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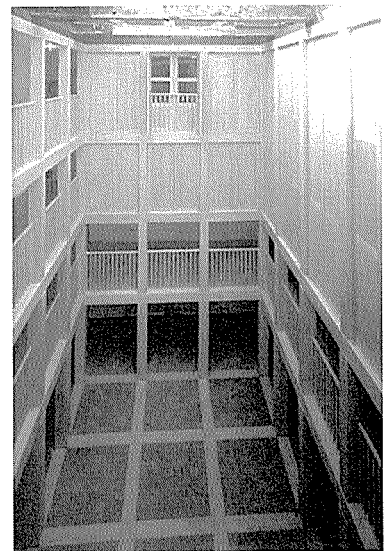
실무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퓨처 시스템의 작품은 앞으로 완공될 Earth Center의 Ark Building을 계기로 그 규모를 더 키우고 지속 가능한 건축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앞장서고 있다. 넷웨스트 미디어 센터의 실현을 오랫동안 지녀왔던 (작품의)실현에의 꿈, 그리고 아이디어와 작품의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소개된 작품은 House in Wales (1998), NatWest Media Center (1999), The Ark at the Earth Center(계획안, 2002) 등 3작품이고, 앵구스 폰드의 에세이 「이미지와 사물간의 관계」가 게재되었다.

▶Michael McGarry와 Siobhán NiÉ anaigh

모두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건축가들이다.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내실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 소개된 작품들로는 멜리폰트(Mellofont)수도원의 박물관, 포들(Poddle) 브릿지, 패럴렐 하우스(Parallel House), 스미스 필드(Smithfield)광장 등이다.

▶Shane de Blacam과 John Meagher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에 주요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 이들 아일랜드 건축가들은 70년대 초 루이스 칸의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단기간이지만 로버트 벤츨리

의 사무소에서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현역 건축가에게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한 이들은 그 이후 세대가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참조사항을 갖는 것과는 달리 우아하면서 솔직한 경향을 지닌다. 그들의 작품에는 루이스 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칸 건축의 형태, 물질성, 빛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개된 작품들은 주로 더블린에 소재한 1979년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로, Firehouse의 교구교회(Parish Church), 더블린 대학 트리니티 컬리지(Trinity College)의 식당·아트룸과 베킷(Bekett) 극장, 復聖의 예배당, 코크(Cork)공업대학 도서관, 헤이츠베리 라인(Heytesbury Lane)의 뮤즈 하우스(Mews House), 리머릭(Limerick)대학 캠퍼스 입구, 배스버로우 퍼레이드(Bessborough Parade)의 주택, 캐슬(Castle)가(街)와 웨버러(Werburgh)가(街) 교차점의 복합건물 등이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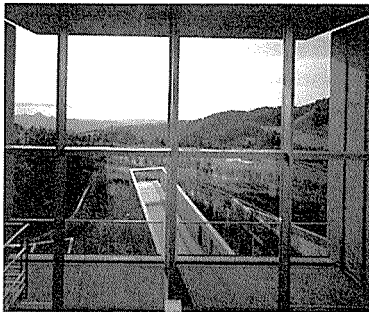
1999년 7월호

이번 호에서는 아마모토 리겐의 사이타마현립대학을 비롯하여,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테크노 플라자, 안도 타다오(安 忠雄)의 엘리에어 마츠야마(Elleair 松山)게스트 하우스와 미나미테라(南寺), 하야카와 쿠니히코(早川邦彦)의 치토세(千歳) 온천 수영장, 코이즈미 마사오(小泉雅生)의 키비코우겐(吉備高原) 유치원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

▶ 안도 타다오의 엘리에어 마츠야마 게스트하우스



건물의 부지는 크고 작은 5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戶内海를 바라다보는 작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 전체는 넓게 펼쳐져 이렇다할 특징은 없으나 주변에 펼쳐진 녹지와 바다를 바라다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요구된 프로그램은 게스트 하우스와 공공에 개방될 것을 전제로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공·사의 공간을 한 건물에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떠올랐고, 이들은 기능별로 이루어진 매스들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졌다. 높이 솟은 게스트 하우스의 매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매스와 선큰 가든, 수영장 등이 붙어나가면서 구성되어졌다.

▶ 안도 타다오의 미나미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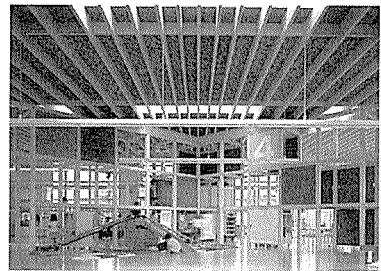
이 건물은 이름에서 보여지듯 절(寺)은 아니다. 나오시마(直島) Art House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으로 작은 미술관이다. 건물은 창이 전혀 나지 않고 모두 목재로 마무리된 평탄하고 작은 집으로, 내부의 전시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교적 길고 다양한 시퀀스를 거치도록 계획되어있다. 건물을 한바퀴 돌아 전실(前室)을 통해 이르는 작은 전시공간은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주도록 의도되었다.

▶ 하야카와 쿠니히코의 치토세 온천 수영장

이 수영장의 계획은 기존의 수용장 맞은편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1990년에 설계하면서 2년 후인 1992년에 이 수영장도

함께 새로이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의 25m풀과 流水풀, 등의 프로그램에 건강증진 센터, 小체육관 등이 추가되었다. 외관에 곡선이 많이 첨가된 이 건물을 작가는 '물을 담은 그릇'이라 설명하고 있다.

▶ 코이즈미 마사오의 키비코우겐 유치원



다른 유치원과 다른 점은 실내를 점유하고 있는 목구조로된 격자 시스템이다.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컨셉트이기도한 이 정글집과 같은 격자 시스템은 그 스케일이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성인의 신장으로는 그 사이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 유아의 스케일에 맞춘 이 격자 시스템은 건물 전체의 커다란 공간을 자유로이 점유하면서 유아들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간막이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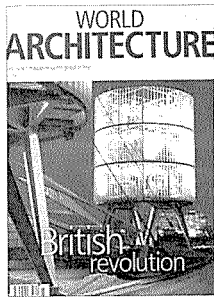
■ 연재

연재물로는 『구조의 계보』제 22회 - 중력을 받친 다는 것'과, '대담: 신세기를 향하여 - 인간을 주역으로 삼는 사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提清二와 大江匡의 대담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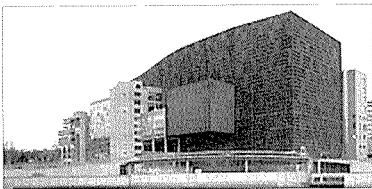
World Architecture

1999년 6월호

이번 호는 영국의 변화하는 건축환경을 특집으로 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있는 밀레니엄돔과 Jubilee Line 11개의 새로운 역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며, 감각적인 외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Supershed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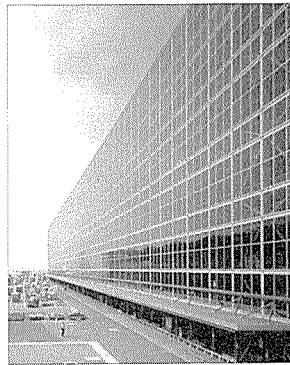
■ 근작소개 - 빌바오, Euskalduna Congress와 음악센터



이 건물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의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게된 빌바오시에 있어서 경제 문화적인 서비스 시설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전략적으로 도시의 강변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옛 조선소 자리에 지어졌다.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 Federco Soriano와 Dolores Palacios는 개념적인 건축의 실험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임하여 설계경기에 당선되었다. 그들은 현재 스페인 건축계에서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적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들의 개념은 비건축적인 읽기를 디자인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은 이야기와 같은 은유로부터 시작된다. 즉, 오디오리움은 옛 조선소의 거칠고 미완성된 이미지로부터 출발하였고, 그 껍데기는 해군의 건조기술을 사용한 이 지역 고유의 조선법에 의

해 지어졌다. Soriano는 이러한 은유는 실제 건물의 경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은유로부터 얻어지는 형태적 대상에 그들의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읽는 데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이미지의 작용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분야별 특집 - Supershed



첵랍콕 공항터미널

Supershed는 공항 터미널, 배급센터, 공장 등의 대규모 건축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외벽을 말한다.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데, 공항터미널의 경우는 대규모의 건물을 단시간안에 지어야하는 문제에서 supershed를 사용하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절감적인 면보다는 소비자들의 눈을 끌 수 있을 만한 파사드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홍콩의 첵랍콕 공항 터미널 건물은 260,000㎡에 필요한 모든 시설-화물운송과 보관실, 사무실, 부속실 등을 수용하였다. 7층 높이의 이 건물은 중앙에 창고를 두고 주위에 양파와 같은 커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km가 넘는 길이에 있는데 화물 센터의 크기가 클수록 접근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 Regional Focus - 영국

단지 10년 전만 해도 정체상태에 있었던 영국 건축은 전례없이 활황기를 맞고 있다. Adam Mornement은 공공의 지원과 복권기금, 그리고 새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속도를 얻은 영국건축의 변화를 조망하였으며,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건축물- 밀레니엄 돔, 런던 Jubilee Line 11개의 새로운 역, 리차드 로저스의 Swindon 모토로라 본사, Benson+Forsyth의 스코틀랜드 박물관 등을 소개하였다.

■ 홀로코스트 기념공원 설계경기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적인 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Burandenburg Gate의 남쪽 대지에 지어지는 이 공원의 설계경기과정과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기념공원 성격을 전형적인 "기념비적 양식"으로 할지, 홀로코스트 연구센터와 결합된 형식으로 정해야되는지의 문제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채, 아이젠만의 수정된안이 당선되었다.

■ IIT 심포지움 - "기술과 건축"

런던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Chris Wilkinson은 시카고 IIT에서, "기술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 지속성, 신재료, 경량구조,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사용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이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기술정보의 공유에 의의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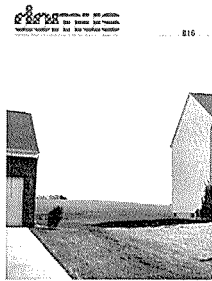
■ 기타

바닥과 천장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각국의 표준 치수와 명칭들의 ISO 인증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Domus

1999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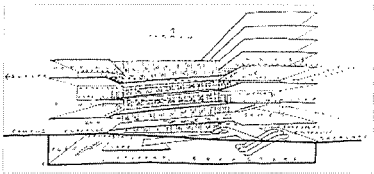
근작으로 Bernard Tschumi의 컬럼비아 대학 Lerner 학생회관과 Asymptote Architecture의 뉴욕 증권



거래소확장의 실제와 가상공간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미국의 건축과 디자인 특집으로, 실험적인 건축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미국건축계에 대한 컬럼이 실렸으며, 미국 산업디자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포드 자동차 디자인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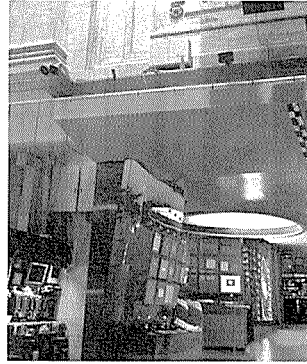
■ 근작소개

▶ Bernard Tschumi의 컬럼비아 대학 Lerner 학생회관



이 건물은 Mckim Mead & White가 설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새로운 공간을 담아내야 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시 안의 컬럼비아 타운 내에 있는 새로운 학생들의 타운이라는 설정으로 디자인은 출발하였다. 외면적으로는 컨텍스트에 충실한 한적한 건물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복잡한 프로그램을 위한 활기가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Hub(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는 이 건물의 주된 순환체계로서 로비, 학생라운지, 게시판 600명 학생의 메일박스를 위한 램프 등이 한곳에 집중되게 된다.

▶ Asymptote Architecture의 뉴욕 증권거래소 확장 및 가상 증권거래소



Studio Asymptote는 LED 메시지 보드를 따라서 60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실제 증권거래소의 trading floor와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증권거래소도 함께 설계하였다. 강력한 시각적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재료, 그리고 기능적인 효율성을 고도의 기술과 결합시켰다. 뒤에서 푸른 빛이 나오는, 주름진 유리벽은 LCD 모니터들에 의해 데이터로 이루어진 커튼을 형성하며 그 앞에는 통신과 컴퓨터 장비가 설치된 이중 곡면의 금속 캐비닛을 두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 상감된 에폭시로 바닥을 마감하였으며, 조각이 된 금속 천장에는 뒤로 후퇴된 반원형의 조명이 설치되었다.

3D Trading Floor는 가상현실의 건축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스케일에 속하며, Asymptote의 디자인과 개념화 기술을 SIAC와 RT-Set의 공학적인 가능성과 결합시켜 완성된 것이다. VRML과 고도의 CAD를 사용하여, 조명, 빛, 텍스처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네비게이션, 이동, 둘러보기 등 다양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 1992년 지진에 의해, 무너진 70년된 이집트 식 극장대신 들어선 Hodgettes + Fung Design Associates의 Hollywood 아메리칸 극장 ▶Rick Joy의 아리조나 단독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미국의 실험적 건축

미국의 지난해 건축과 예술에의 환상적인 기여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세계가 결국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라크계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Cincinnati 현대 미술관 설계경기 당선이나, 맨하탄 웨스트 사이드의 혼재된 도시 하부구조 구축등에 대한 실험적인 컴퍼티션등의 예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Thom Mayne, Neil Denari, Eric Owen Moss등도 "새로운 사상가" 들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대한 강한 낙관이 작용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실험을 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세기 초에 번성했던 미국 낙관주의의 전통적인 정신은 지금 부활하고 있다.

■ 미국의 산업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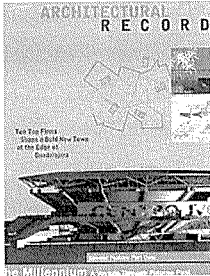
"사물의 역사"라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 호는 미국 산업디자인의 발달과정을 따라가보는 다소 맥락적 경로를 취하였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사물들은 미국적 신화와 결합된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상표의 로고에서부터, 패션, 오락, 생활전반에 이르는 가장 미국적인 디자인들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 ▶수만명의 사진에 대한 생각과 사용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폴라로이드는 사진기술의 혁신이며, 사회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산업 디자인 과정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며, 미국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던 폴라로이드 케이스 디자인과 ▶Ford Motor Company의 자동차 디자인 역사 등을 개관하였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6월호

이번호는 다가오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첫 번째 밀레니엄에는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와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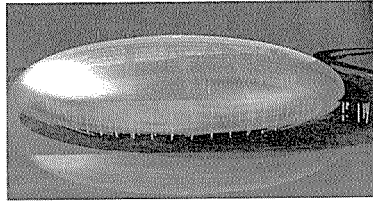
의 영화나 건축이론가들이 그렸던 미래 사회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또한 금세기의 가장 흔하게 쓰였던 건축 재료, 건축 상품 등을 소개하였다. 근작으로는 멕시코의 한 사업가의 투자에 의해 개발되는 복합단지인 JVC Center와 Asymptote의 가상 뉴욕 증권거래소 등이 소개되었으며, 건물유형연구에는 연구소가 다루어졌다.

■ 밀레니엄 특집- 20세기를 되돌아 본다.

지난 1000년을 되돌아보는 기획으로 첫 번째 밀레니엄을 맞을 당시 건축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로 시작하고 있다. Suzanne Stephens는 대변혁의 시기였던 서기 1000년을 재조명하기 위해 당시 유럽의 건축을 소개하였으며, 우리가 그로부터 얼마나 진보하여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Michael Sorkins는 SF영화나 건축가들이 바라본 미래세계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유토피아에 대한 시각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때때로 거대한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을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다. 한편, N.J. Novitsky는 지어졌다면 걸작이 되었을 만한 건축작품들을 디지털기술에 의해 재연해 내었다.

■ 근작소개

▶ Gadalahara의 JVC Center
성공한 사업가인 John Vergara는 멕시



코의 Gadalahara 외곽에 문화, 상업 복합 시설과 주거, 오락 시설을 세우는 도시적 사업을 발주하여, 전 세계 10명의 스타 건축가들에게 주요 건물의 디자인을 맡겼다. 이 프로젝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예산에 끼워 맞춰야 하는 대신에 초기단계부터 그들의 꿈을 펼 수 있었다는 것이다. TEN Architectos의 컨벤션 센터(그림5)는 중앙의 전시공간이 두어지고 그 주변에 동심원상으로 기능이 분배되어 있다. 첫 번째 링에는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링에는 회전하는 램프가 각 층을 연결하고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 로비가 놓였다. 그 밖에 Toyo Ito의 아트 뮤지엄, Coop Himmelblau의 21세기를 위한 쇼핑센터, Daniel Libeskind의 대학교, Steven Holl의 주거단지, Tod Williams & Billie Tsien의 공연장, Philip Johnson의 어린이 박물관, Morphosis의 닭경기장 및 이벤트용 스타디움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 Asymptote의 뉴욕 증권거래소 확장안 및 가상 증권거래소 등이 근작으로 자세히 다루어졌다.

■ 사례연구 -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 Ricardo Legoretta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연구소들은 시약 선반들과 환기후드, 세척 스테이션 등 연구실에 필요한 공통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형태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례로 Rowan Hall의 Teaching lab은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디자인 된 반면에, MBT Architecture의 McKelvey

Federal Building은 단일한 실험이 몇 년 동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된 실험실을 필요로 하였다. Lord Aeck & Sargent의 조지아 퍼블릭 건강센터와 Legoretta의 Chiron Life Science Center는 생물학에 중점을 두는 연구실을 모델로 삼았다. 두 연구소 다 자연조명을 최대한 고려하고, 실내에서 야외를 조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편의에 신경을 썼다. 조지아 건강센터는 길고 낮은 건물로서, 많은 양의 실험 표본을 빠르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건물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었다. Chiron회사의 연구소는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약학과 생물학 각 타입의 실험실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개별 건물들의 예로 ▶뉴저지 Glassboro, Rowan Hall 연구소 ▶캘리포니아 Emeryville, Chiron 회사의 Ricardo Legoretta 건물 ▶루이지애나 Lafayette, Estuarine Fisheries and Coastal Habitat Center ▶조지아 Decatur, 조지아 공공 건강센터 ▶수문학, 지질학, 생태계등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Menlo Park, Vincent E. McKelvey 연방 건물 등이 소개되었다.